

사람이 희망입니다.

KRIVET Issue Brief

2016

103호

발행인 이용순 | 발행일 2016년 7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과 노동시장 성과

- 월평균 임금은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13만 원 이상 높음.
- 미취업 비율은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이 높은 청년이 상대적으로 낮음. 특히 성실성이 높은 집단이 성실성이 낮은 집단보다 미취업 비율이 5.8%p 낮음.
-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이 높은 경우,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높음. 특히 성실성이 높은 청년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5.6%로, 성실성이 낮은 경우(16.9%)보다 8.7%p 높음.
- 성격이나 인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어려서부터의 인성교육이 노동시장 이행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도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할 수 있음.

- 그동안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 점수, 학력 등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능력이 주로 활용되어 옴.
- 이러한 인지적 능력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이를 비인지적 능력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.
 - 비인지적 능력의 측정 방법은 다양하며, 국내 연구에서는 가정 배경, 친구 성향, 해외 연수 여부, 창의성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함.
 - 성격의 5요인(Big 5 personality traits)은 비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간편하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임.
- 이 글에서는 성격의 5요인을 활용하여 비인지적 능력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고,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|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(KEEP)

-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(KEEP) 9차(2012년) 및 11차(2014년도) 중3 코호트, 고3 코호트 자료
 - 9차 조사 자료에서는 비인지적 능력(성격의 5요인) 문항을 사용하였으며, 11차 조사 자료에서는 노동시장 성과 관련 데이터를 사용
 - 단, 수능 점수는 각 응답자에게서 마지막으로 보고된 점수를 활용하였고, 국·영·수 각 과목을 100분 위 점수로 환산하여 사용
- 분석 대상: 11차 조사를 기준으로 2,233명을 분석
 -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자 1,478명(임금근로자 1,403명, 자영업자 75명), 미취업자 755명(실업자 171명, 비경제활동인구 584명)임.



● 분석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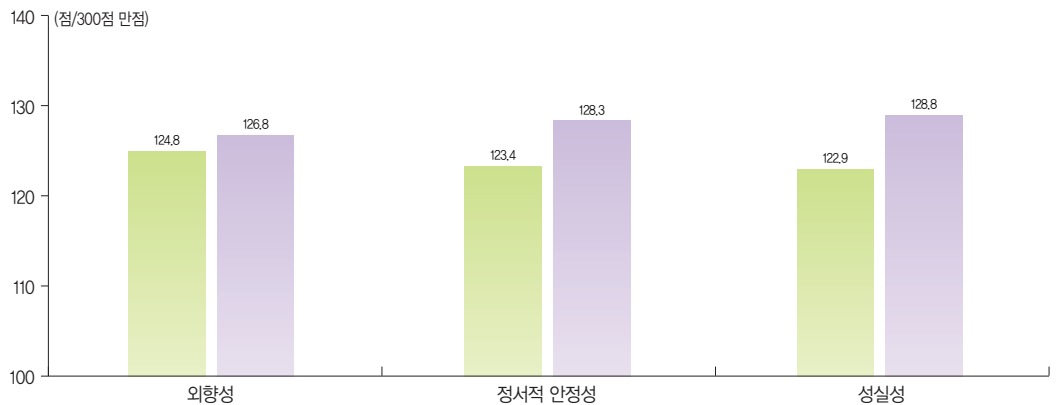
- 비인지적 능력: 성격의 5요인(Big 5 personality traits) 중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, 중위수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
 - 외향성: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, 또는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정도
 - 정서적 안정성: 자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, 세상을 뜻대로 통제할 수 있으며,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의 정도. 한국교육고용패널(KEEP)에서는 정서불안정성으로 측정하였으나 이 분석에서는 정서적 안정성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사용함.
 - 성실성: 사회적 규칙, 규범,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
- 관촬은 일자리: 중위수 임금 이상(임금근로자, 자영업자), 300인 규모 이상(임금근로자), 정규직(임금근로자)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

02 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

|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이 높을수록 인지적 능력이 높음.

- 비인지적 능력 수준별 수능 점수¹⁾를 보면,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음.
 - 외향성이 높은 집단의 평균 수능 점수는 126.8점으로, 외향성이 낮은 집단 124.8점보다 2.0점이 높음.
 -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평균 수능 점수는 128.3점으로,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집단 123.4점보다 4.9점 높음.
 - 성실성이 높은 집단의 평균 수능 점수는 128.8점으로, 성실성이 낮은 집단의 122.9점보다 5.9점 높음.

| 각주 |
1) 국·영·수 300점 만점 환산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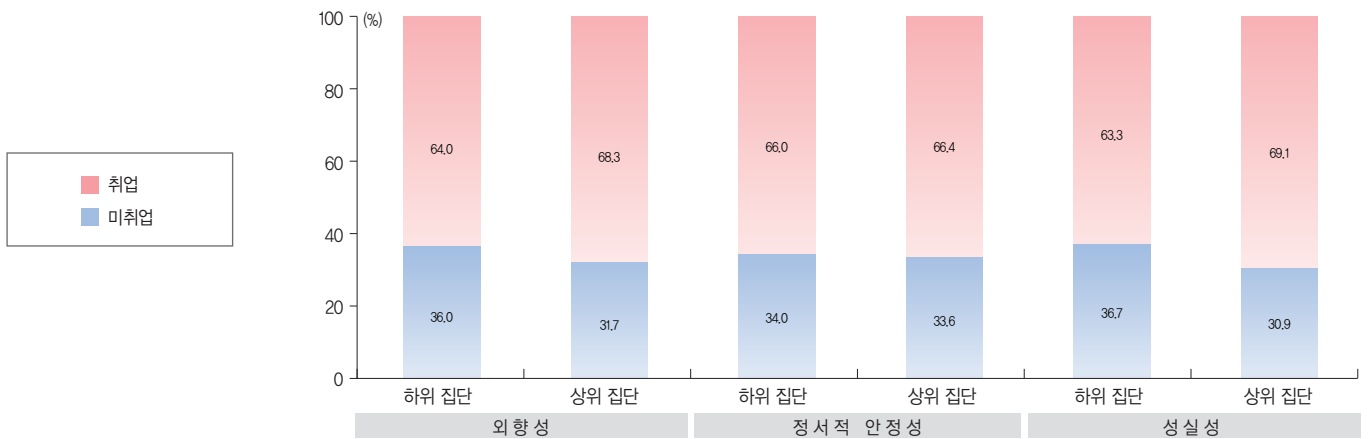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에 따른 수능 점수

| 주 |
수능 국·영·수 각각의 100분위 점수의 합(300점) 기준

03 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과 노동시장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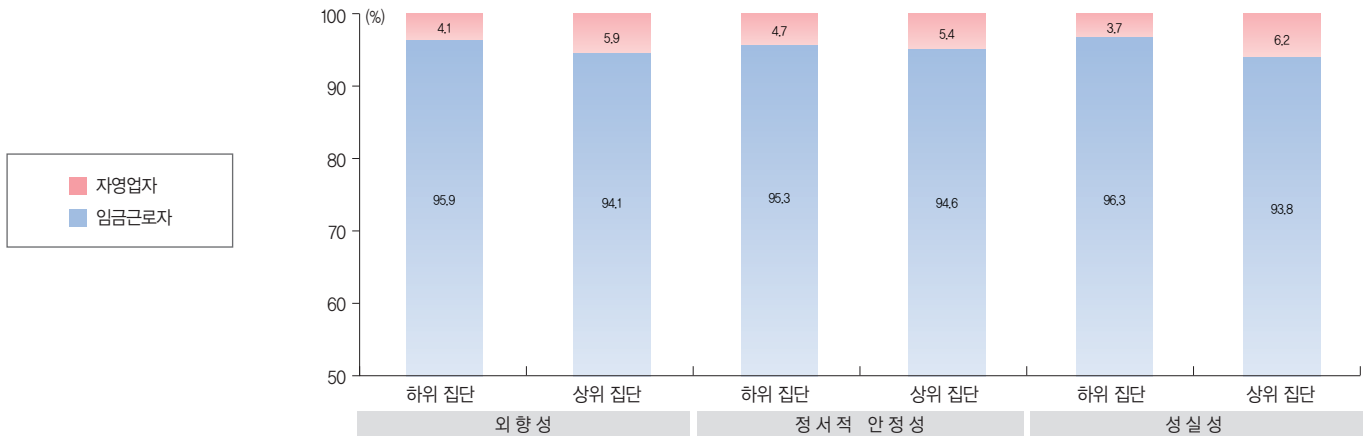
|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이 높은 청년이 낮은 청년보다 관촬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높음.

-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, 외향성과 성실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미취업 비율이 높음.
 - 외향성이 낮은 집단의 미취업 비율은 36.0%이나, 높은 경우는 이보다 4.3%p 낮은 31.7%임.
 -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집단의 미취업 비율은 34.0%로,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집단(33.6%)과 차이가 거의 없음.
 - 성실성이 낮은 집단의 미취업 비율은 36.7%로, 성실성이 높은 집단은 이보다 5.8%p 낮은 30.9%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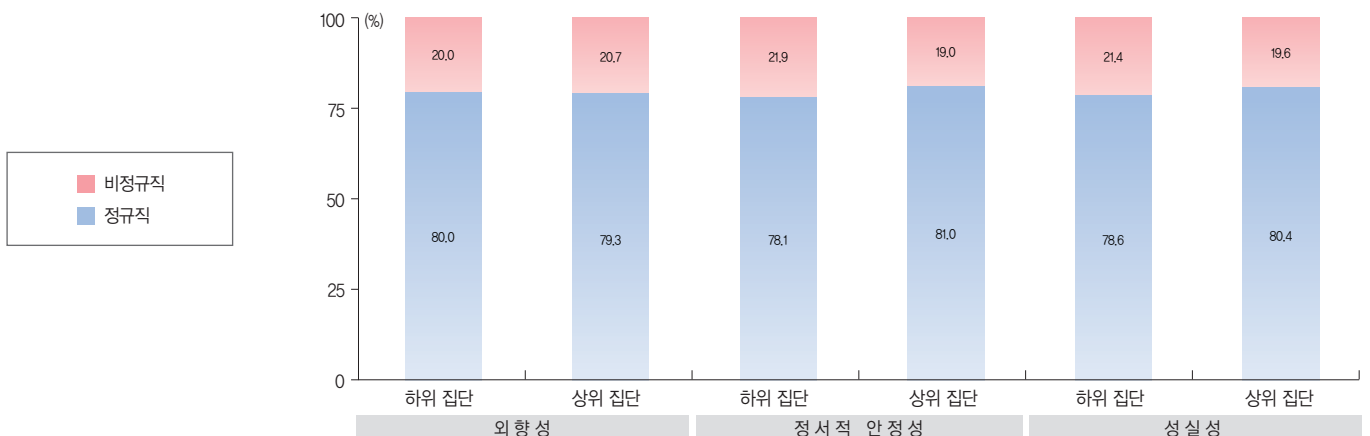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과 취업·미취업 비율

-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이 높은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.
 -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이 높은 청년 취업자의 5% 이상이 회사 취업보다 도전적이며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에 종사함.



[그림 3] 청년층 비인지적 능력과 임금근로자·자영업자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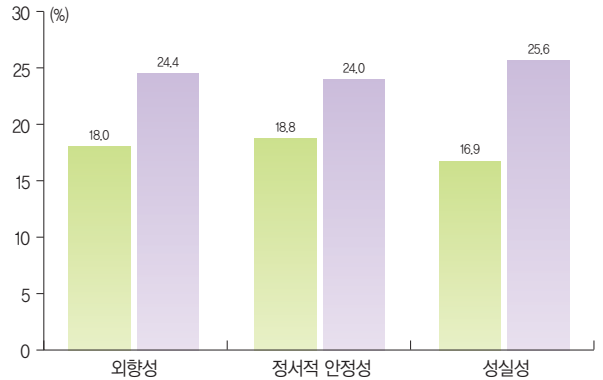
- 비정규직 비율은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 수준에 관계없이 20%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남.



[그림 4] 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과 정규직·비정규직 비율

- 관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외향성, 정서적 안정성, 성실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최소 6.4%p에서 최대 8.7%p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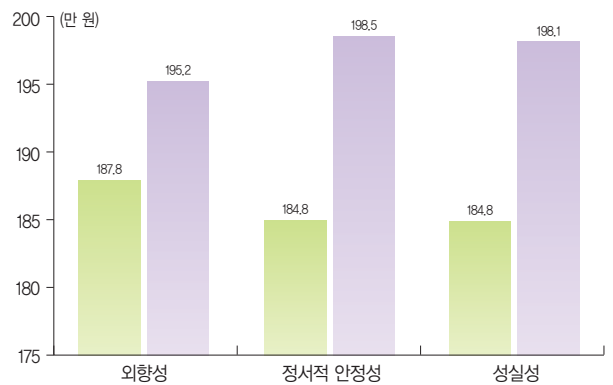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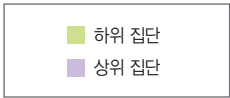
- 외향성이 높은 취업자 중 관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4.4%로, 외향성이 낮은 집단(18.0%)보다 6.4%p 높음.
-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취업자 중 관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4.0%로,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경우(18.8%)보다 5.2%p 높음.
- 성실한 취업자 중 관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5.6%로, 성실성이 낮은 취업자 16.9%보다 8.7%p 높음.



[그림 5] 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과 관찮은 일자리 비율

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이 높은 청년은 월평균 임금이 최대 13만 7천 원 더 높음.

- 외향성이 높은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 2천 원으로, 외향성이 낮은 청년(187만 8천 원)보다 7만 4천 원 높음.
-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198만 5천 원으로,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청년(184만 8천 원)보다 13만 7천 원 높음.
- 성실성이 높은 청년은 월평균 임금이 198만 1천 원으로 성실성이 낮은 청년(184만 8천 원)보다 13만 3천 원 높음.



[그림 6] 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과 월평균 임금

04 시사점

- 비인지적 능력을 대변하는 성격 유형이 인지적 능력을 대변하는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, 노동시장의 성과인 취업 비율, 관찮은 일자리 취업 비율, 월평균 임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성격이나 인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어려서부터의 인성교육이 노동시장 이행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
 - 시험 성적 위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데서 간과될 수 있는 비인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
 - 학교와 가정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뿐 아니라 활동, 표현 등을 통해 인성이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.

홍 광 표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)